



광주 1만7000여명 '독도 플래시몹'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20일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독도 플래시몹'이 열렸다. 프로축구 광주FC와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광주시민 1만7000여명이 태극기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규약 개정 거부 전교조 '법외노조' 가나

조합원 투표 결과...68%가 "해직자 배제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제외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최종 거부했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法外) 노조'를 감수하더라도 해직자를 계속 끌어안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오는 24일 고용부가 법외 노조를 통보할 경우 촛불시위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20여명(정부 9명)의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규약을 유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전교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예고한대로 오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으면 지난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전교

조는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조직이 해체되지는 않지만 14년간 행사해 온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다.

먼저 교육부·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또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하고 일일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과 사무실 비품·행사지원비 5억원 등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임자 파견권도 박탈된다. 그동안 전임자는 교사 신분으로 파견근무였지만 앞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오면 곧바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법정 밖에서는 촛불시위를 매주 병행할 방침이다. 여론을 바서 연가투쟁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중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대학 정원 1만7천여명 줄었다

10년새 광주 8761명·전남 8885명...감소를 전국 최고

2003~2013년 국감자료 분석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정원 감소율은 수도권권 평균 감소율에 비해 서너배 가량 높은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70~90% 정도 높았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박인숙(새누리))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전국 대학의 정원은 65만여명에서 54만여명으로 줄어 평균 감소율은 16.4%였다.

이중 광주는 2003년 3만727명에서 2013년 2만1966명으로 8761명이 줄

어 감소율이 28.5%로, 광역시 중 감소인원이 가장 많았고 감소율도 가장 컸다.

타 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부산의 감소인원은 7752명 감소율은 13.8%, 대구는 감소인원 4256명 감소율 14.3%, 인천 감소인원 4110명 감소율 23.1%, 대전 감소인원 4212명 감소율 13.3%, 울산 감소인원 380명 감소율 5.7% 등이다.

전남도 2003년 2만8213명에서 2013년 1만9328명으로 줄어 이 기간 8885명의 정원이 줄었고 감소율이 무려 31.5%에 달해 전국에서 경북(31.5%)과 함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타 광역 비교해도 감소인원의 경우 같은 기간 경북 2만188명, 전북 1만

516명, 다음으로 감소인원이 많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감소율은 평균 8.3%에 그쳐 지방대학 정원 감소율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정원 감축인원과 감소율이 이처럼 큰 것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대비, 부실을 줄이기 위해 정원을 자체적으로 줄인 데다 인구대비 대학 수가 너무 많은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현행 대학의 구조조정이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대학구조개혁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527명 학자금 대출 연체 법적조치 받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에 따르면 527명이 가압류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연체자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440여만을 갖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했다.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자금 대출을 장기연체해 법적 조치를 당한

신용불량자는 527명으로 광주는 234명, 전남은 293명이다.

법적조치는 가압류 235명, 소송 286명, 강제집행 6명 등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8명, 2010년 111명, 2011년 72명, 2012년 152명, 2013년 6월 현재 133명으로 2011년에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다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3분 / 해질 17시 50분 / 달돋이 19시 21분 / 달질 08시 40분

청아한 가을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 보일겠다.

광주	맑음	11/23°C
목포	맑음	13/21°C
여수	맑음	15/21°C
나주	맑음	9/23°C
완도	맑음	13/23°C
구례	맑음	10/24°C
강진	맑음	9/23°C
해남	맑음	9/23°C
장흥	맑음	9/23°C
순천	맑음	9/23°C
영광	맑음	10/22°C
진도	맑음	10/22°C
전주	맑음	11/22°C
군산	맑음	10/21°C
남원	맑음	11/22°C
옥산도	맑음	15/19°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목포	03:15	08: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여수	15:49	20:5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10:18	03:5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22:21	16:1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3	12/22	12/27	9/16	8/16	7/18

전남대, 올 행시 2차 합격자 3명 배출

전남대학교는 올해 행정고시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 3명이 2차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20일 전남대에 따르면 일반행정 전국에 이동률(29·행정학과 졸업)씨, 이민규(24·법학과 4학년)씨, 전남지역에 최유선(32·행정학과 졸업생)씨가 2차 필기시험을 합격해 최종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남대는 2011년과 2012년도 행정고시 합격자를 각각 3명씩 배출했으며, 지난 6월에도 의

무고시 합격자를 1명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대는 그동안 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등 각종 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PSAT 특강 및 모의고사, 주요 2차 과목의 인터넷 강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편, 올해 안전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전남대 출신은 31명으로 지방대학 중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시민 차량 설치 블랙박스

광주경찰, 치안활동 활용

광주경찰청은 시민들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치안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블랙박스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각 동별로 블랙박스 10~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블랙박스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고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감사장이나 보상금도 줄 예정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 특허 제10-0562035호 /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 냉기차단 /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목포대리점 (061) 284-0485 /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남	32~68세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의사, 변호사	52~6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국영기업체 기관장	35~64세	
공무원(5급~9급)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교사, 교수	36~59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29~4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대기업 간부	33~70세	
삼성, 현대, LG 직원	27~48세	공무원(7급~9급)	회사원, 자영업	33~48세	
은행원, 연구원	29~39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무술산 여성' 희망		
대(중.소)기업 직원	29~48세	간호사, 은행원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7~4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화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세무사, 연구원	26~47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 호남지사 063) 275-7766